

14기 임원선거, 박상만 VS 박성철 2차 투표 맞대결 부위원장 5인 당선 확정 ... 2차 투표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

금속노조 14기 조합 임원 선거 개표 결과, 기호 1번 박상만-황영선-허원 후보조와 기호 2번 박성철-김유철-엄미야 후보 조가 2차 투표에서 맞붙는다.

금속노조는 17일부터 4일간 14기 조합 임원 선거를 진행했다. 위원장-수석부위원장-사무처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. 기호 1번 박상만-황영선-허원 후보조와 기호 2번 박성철-김유철-엄미야 후보조가 각 1, 2위를 차지했다. 2차 투표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

진행한다.

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1번 박상만 후보조가 54,995표로 39.09%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2번 박성철 후보조는 48,831표로 34.71% 득표율을 기록했다. 3번 양기창 후보 조는 23,332표, 16.58%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.

여성명부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고은하 13기 부위원장은 찬성 110,977표, 78.87%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.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에는 김형수 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장이 찬반투표 결과 111,724표, 79.41%로 당선됐다.

다섯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투표에서 기호 1번 김규진, 2번 정상만, 3번 구진성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했다. 기호 4번 김병철 후보와 기호 5번 이태현 후보는 2차 찬반투표를 진행한다.



1번 허원 사무처장-박상만 위원장-황영선 수석부위원장 후보



2번 엄미야 사무처장-박성철 위원장-김유철 수석부위원장 후보



부위원장 기호 4번 김병철, 기호 5번 이태현 후보